도하아시안게임 개막 D-50

1 39억 아시안의 성화 타오르다

성화봉송 55일간 5만km '역대 最長'

14일 부산 도착…인도·필리핀·중국 등 15개국 거쳐

39억명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선수단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강국으로 등장한 중국에 이어 아시아 2위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막 50일을 앞두고 ① 39억 아시아인의 성화 타오르다 ②숫자로 풀어본 도하 대회 ③'올드 &뉴'가 교차하는 땅 도하 ④세계최대 규모 돔 '어스파이어' 등 4차례로 나눠 아시안게임 특집 시리즈를 연재한다.

9일 카타르 도하 골프클럽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성화점화의식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랜턴에 불을 붙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2월1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안게임을 밝혀줄 성화가 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도하 골프클럽에서 채화돼 장장 5만㎞에 달하는 봉송길에 올랐다.

성화는 다음 달 25일 도하의 알 샤말 항구에 귀환할 때까지 55일에 걸쳐 인도, 한국, 필리핀, 일본, 중국, 마카오,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 15개국을 거치게 된다.

총 3천500여 명의 주자가 이어 달리게 될 성화는 도하를 출발해 아시안게임의 발상지인 인도 뉴델리에 들른 뒤 14일 직전 대회(2002년) 개최지였던 부산에 도착한다.

부산에서는 국내 최장 다리인 광안대교를 달린 뒤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전에 뛰어든 인천으로 옮겨져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날 성화 채화식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IOC)이자 도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셰이크 탐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 후계자가 직접 불씨를 붙였다.

'카타르의 정취'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채화식은 수 백발의 축포가 걸프만 밤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아랍권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스타트를 알리는 국제적인 첫 공식 행사라는 의미를 담았다.

외신 취재진 수 십명이 이번 행사를 취재해 열기를 달궜다.

성화봉은 무게 1.3㎏의 초경량으로 이번 대회 마스코트인 '오릭스(아라비아 영양)'의 뿔을 본뜬 모양이며 시속 60㎞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화는 에어버스 301 항공기로 수송된다.

5만㎞의 봉송길과 55일의 봉송 기간은 단연 역대 최장이다.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에는 143개 도시를 돌았지만 봉송 기간은 22일이었다.

셰이크 조안 빈 하마드 알 타니 성화채화 대사와 칼리드 알 카타니 대회조직위원회(DAGOC) 사무총장은 "성화 채화를 통해 아시안게임이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을 아시아 각국에 알렸다. 카타르의 역사에도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11월25일 바레인을 거쳐 카타르로 돌아오는 성화는 1주 간 안치 기간을 거쳐 12월1일 개회식이 열리는 칼리파 스타디움에 입성해 보름 동안 아시아 젊은이들의 기상을 밝혀주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양영아 4위 '체면치레'

오초아 시즌 4번째 우승
모렐리아챔피언십 최종

'멕시코의 박세리' 로레나 오초아〈사진〉가 고국 팬들 앞에서 시즌 네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 '코리언 군단'은 양영아(28)가 4위에 올라 체면치레했다.

오초아는 9일(한국시간) 멕시코 중부 미초아칸주 모렐리아의 마리아 레시덴티알골프장(파73·6천763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코로나 모렐리아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2위 훌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277타)를 5타차로 따돌린 오초아는 4승 고지에 올라 다승 공동1위, 상금랭킹 1위, 그리고 평균타수 1위 등 3관왕을 향해 줄달음쳤다.

첫날부터 선두권을 오르내린 양영아는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10언더파 282타로 4위를 차지,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양영아는 3월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에서 공동 7위에 오른 이후 한 번도 10위 이내에 들지 못했으나 이번 대회 성적으로 내년 전경기 출전권을 확보했다.

유선영(20)과 조령아(22·농수산홈쇼핑)는 6언더파 285타로 공동 16위로 대회를 마쳤고 기대를 모았던 김미현(28·KTF)은 이날 3타를 줄였지만 공동 26위(4언더파 288타)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상욱 PGA 2부투어 우승

채러티클래식 16언더

부상에서 회복한 나상욱(22·코오롱·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2부 네이션와이드투어 마크 크리스토퍼 채러티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나상욱은 9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란초 쿠카몽가의 엠파이어레이크골프장(파71·7천1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2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68타로 크리스 타이들랜드(미국·271타)를 3타차로 따돌렸다.

첫날부터 최종일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나상욱은 첫날 9언더파 62타의 맹타를 휘둘러 선두로 올라선 뒤 2라운드에서도 5타를 줄였고, 3라운드에서 이븐파로 주춤했으나 마지막날 3타를 줄이며 선두를 지키는 뒷심을 발휘했다.

한편 박진(27)은 이번 대회에서 합계 9언더파 275타로 공동 11위에 올랐다.

최경주 타이틀 방어 실패
데이비스 러브 3세 우승

크라이슬러 클래식 최종

'필드의 귀족' 데이비스 러브 3세(미국·사진)가 3년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러브3세는 9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포리스트오크스골프장(파72·7천311야드)에서 열린 크라이슬러클래식 마지막날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제이슨 본(미국·274타)에 2타차로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작년 우승자인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43위에 그쳐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러브 3세는 2003년 이후 3년 만에 승수를 추가,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19승을 쌓았다.

3라운드에서 러브3세와 공동 선두에 올랐던 크리스 코치(미국)는 이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12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형택 ATP 랭킹 48위 역대 한국남자선수 중 최고

이형택(30·삼성증권)이 9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에서 48위를 차지하며 역대 한국 남자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까지 올랐다.

지난주 ATP 투어 AIG 일본오픈에서 세계 21위 드미트리 툴스노프(러시아), 7위 토미 로브레도(스페인) 등 상위 랭커를 잇달아 제압하고 단식 4강에 진출했던 이형택은 랭킹 포인트 771점을 얻어 지난주 57위에서 9계단 상승한 48위까지 올라섰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41위인 태국의 파라돈 스리차판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여자 선수 중에서는 이덕희가 1983년 47위까지 올랐고 박성희도 1995년 57위까지 진출했으며 남자 선수 중에서는 이형택이 최초로 40위권의 벽을 깼다. 이형택의 종전 최고 순위는 지난 2003년 3월 기록한 52위였다.

스포츠중계

10일(화)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05 : 00·X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 : 45·SBS스포츠)

▲프로농구 시범경기〈KT&G-SK〉(18 : 50·Xports)

네 바퀴로 20억 번
어느 회사원 이야기
☎060-700-3658

TV홈쇼핑 고객평가 최우수제품!
유슨 제트그립 트레킹화 1+1 파격할인대전치!!
구입문의 080-225-4545